

현장과 시각

정동영, 버리면 얻을 지니



박지경

서울취재팀 차장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 보였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대선 이후 정치 행보가 개운치 않다. 당은 10일 가까스로 새 대표를 뽑음으로써 대선참패 후 혼수상태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 전 의장은 대선 직후 전북을 거쳐 광주로 피정(避靜)을 갔다. 사실 정가에서는 정 전 의장이 대선 이후 최소한 '당의 재건을 위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입자가를 땀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하지만, 그는 어느 것도 분명히 하지 않고 측근들의 민류를 뿌리친 채 호남행을 택했다.

그의 이런 행보에 대해 지역주의에 기대 정치적 재기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 이가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그는 전주 선대위 해단식에서 "큰 뜻을 이루려는 내 꿈은 끝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피정을 하기보다 전남지역을 틈틈이 돌며 지지자들을 만났다.

처음부터 목상을 통해 자신과 당의 현재와 미래를 살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는 피정의 본뜻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구급 26일 서울에 잠시 올라온 정 전 의장은 또 다시 경남지역을 방문, 지지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등 눈에 드러나지 않게 서울과 지방을 오갔다.

그는 또 지난 7일에는 전주, 9일에는 서울 여의도를 방문, 올 총선 출마 입지자와 측근들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2003년 정풍운동의 주역이었던 그가 이제 정풍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명분없는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보로 볼 때 정 전 의장은 다시 전북에서 출마를 시도하고 측근의 공천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 전 의장으로서의 코앞에 닥친 총선에서 당내 최대 계파의 수장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기가 아까울 수 있다. 그러나 신당 자체가 호남이라는 고립된 섬 말고는 아무런 지지기반을 갖지 못하게 된 이 마당에 이런 '작은 욕심'은 아름답게 보이질 않는다.

정 전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정치적으로 못 배운 것이 한가지 있다. 노 대통령은 크게 버림으로써 크게 얻고 적게 버리면 적게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 전 의장은 정치 인생에서 한번도 자신을 버리지 못했다. 정 전 의장에게 체근담 14장의 '버리면 얻을 것이다'편을 권하고 싶다. /jkpark@kwangju.co.kr

'힐러리 눈물' 藥인가 毒인가

뉴햄프셔 예선 승리후 美정가 '감성쇼' 논쟁

"일단은 성공"...나약한 모습으로 비칠수도

'눈물 한 방울이 힐러리를 살렸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이 하루 전 보인 '눈물'이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매리엔 퍼놀드 영(여·64)이라는 유권자의 "어떻게 그렇게 늘 씩씩해 보이느냐"는 질문에 클린턴이 보인 눈물은 그의 감성적 면을 부각시키면서 평소 이미지를 바꿔 놓는 '약'이 됐다...

중 맨체스터 노조측이 아내를 비난한 것에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보였다. 그는 눈물을 보인 뒤 기자들에게 내리던 눈이 녹아 눈물 같이 보였을 뿐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그때까지 선두주자로 여겨졌던 머스키는 나약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대선 레이스에서 패배했다. 공화당의 팻 슈로더 하원의원이 1997년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하면서 흘린 눈물은 그녀의 정치 경력을 훼손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거문제 관련 저자인 폴 애브라함슨은 "유세 중 눈물은 특히 여성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눈물은 사람들에게 후보의 지도력에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눈물이 도움이 된 경우도 있다.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의 경우 2004년 대선에서 실직한 한



지난 8일(현지시간) 뉴햄프셔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뒤 환호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여성인 자신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하는 것을 들던 중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다. /연합뉴스

그가 보인 '따뜻한' 인간성은 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 /연합뉴스

힐러리 눈물 끌어낸 유권자 오바마 상원의원에 투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눈물'을 이끌어 낸 유권자가 정작 본인은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리지 리포트에 따르면 프리랜서 사진가이기도 한 매리엔 퍼놀드 영은 9일 한 라디오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질문을 받고 보인 클린턴 의원의 눈물은 순수한 것으로 보였지만 자신은 이미 오바마 의원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었으며 투표도 오바마 의원에게 했다고 밝혔다. 퍼놀드 영은 "클린턴 의원의 유세에 참석하기 전에 먼저 간 오바마 의원 유세장에서 그의 감동적인 연설을 듣고 눈물을 흘렸었다"면서 "클린턴 의원의 눈물이 순수해 보였지만 자신을 울게 만든 오바마 의원에게 이미 기울어진 마음을 돌려놓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상 첫 여성 미국 대통령 도전에 나선 아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눈물'로 일거미 승리에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아내가 너무 자랑스럽다."며 감격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힐러리의 눈물이 큰 화제를 몰고온 가운데 클린턴까지 눈물을 흘림으로써 이들 부부의 눈물이 향후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호사자들의 주목거리다. /연합뉴스

李당선인 3월중 방미 가능성

힐 차관보 면담 "가능한 빨리 방문 부시 만나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가능한 빨리 미국을 방문,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해 3월 방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10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접견한 자리에서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을 방문해서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뜻을

전한 힐 차관보에게 "가능한 빨리 가겠다"고 답했다고 주호영 대변인이 전했다. 이 당선인의 방미시기와 관련, 당선인이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정책의 큰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취임 직후인 3월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선인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황을

보야한다"며 3월 방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당선인이 원칙적 입장에서 조기 방미의사를 밝힌 것으로 구체적 방미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취임 직후에는 국정 현안을 파악해야 하고 총선을 비롯한 정치 일정도 많아 총선 이후인 5~6월이나 방미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회창 신당 창당발기인 대회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중심이 된 '자유신당'(가칭)이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당발기인 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섰다. 이날 발기인대회에는 전체 발기인 210명 중 이 전 총재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김혁규 전 경남지사, 강삼재 전 의원과 텔런트 김성민씨 등 발기인 196명과 지지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발기인을 직업별로 보면 경제계 인사가 35명으로 가장 많고 정계(33명), 문화·예술계(28명), 교육계(25명), 공직 및 사회·시민단체(30명) 등이다. 이 전 총재는 인사말에서 "오늘 신보수주의의 햇볕을 들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 개인의 능력 발휘를 국가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최고의 품격있는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또 반세계가 넘는 분단 극복의 해법은 북한 폐쇄체제를 개혁개방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 만드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 자유주의 원칙에 합치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향

후 5년간 한나라당이 오만하고 자만에 빠진다면 국민은 또 새로운 진보적 운동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수도 경쟁상대가 생겨 스스로 쇠신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보수신당은 과거 우파·좌파가 대치했을 때 풀 수 없었던 대치의 극단적 상황을 조정해나가는 균형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 "지난 10년간의 잘못을 고치는 게 많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도 있는 만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자유신당이 다수 의석을 얻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건전한 정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신당은 창당준비위원회에 창당기획단장을 맡았던 강삼재 전 의원을 선출했다. 당 지도부는 애초 외부인사에게 창당준비위원장직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창당이 2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창당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강 단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나라 친박 의원 회동... '공천 불만' 성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측근 의원 30여 명이 10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만찬 회동을 가져 회동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모임은 정계은퇴를 선언한 김용갑 의원 위로인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 하지만 이른바 '친박(親朴·친박근혜)' 의원들이 대규모 회동을 가진 것은 지난해 9월

김기춘 의원 생일축하 모임 이후 넉달만으로, 해외 체류 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서너명을 제외하곤 사실상 전체 모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앞서 대선후보 경선 직후였던 지난 회동에선 당직 인선 등과 관련한 이명박 당선인측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와

당안팎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날 회동엔 측근들과 대규모 회동을 극도로 자제해 온 박 전 대표가 참석해 모임을 주재할 예정이어서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4·9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직까지 마다하고 당에 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박 전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가장 관심거리다. /연합뉴스

2008 진주남강 마라톤대회 2008년 3월 23일(일) 진주공설운동장. Includes details about registration, priz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rathon event.